



# 인공지능 시대의 설교: 새로운 환경, 변함없는 본질



**에스라 김 교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자 AI목회컨설팅그룹 대표이다. 저서로는 『ChatGPT를 활용한 성경 연구법』 등이 있다.

ezrakim9191@gmail.com · aipcg.org

사진제공: 이종민 기자

2022년 'ChatGPT' 등장과 함께 AI의 잠재력을 실험해 오며 설교 준비와 목회적 활용 방안을 연구했다. 이에 실제 체험하고 있는 AI의 장점과 맹점을 소개하며 설교자의 본질을 잃지 않는 AI와의 협업 확장을 소개한다.

## AI와의 협업, 연구와 업무 효율 10배 향상!

원론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필자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필자는 2022년 11월 ChatGPT의 등장과 함께 AI의 잠재력을 실험해 왔다. 학생들에게 많은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동남아시아 신학 교육 선교의 비전을 갖고 태국과 캄보디아, 네팔 등에서 방학 중 영어로 강의하면서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 1\_ 선교지에 적합한 교재 발행

먼저,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재가 너무 신학 중심이어서 성경 자체에 관한 연구에 좀 더 충실한 교재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선교지는 고도의 서구 신학적 지식을 교육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는 있지만 고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책을 만들고 싶었다. 이에 아마존에 9권의 구약 관련 서적을 영어로 출간했고, 그중

에 5권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했다. 이는 사실 필자 역량의 10배 이상을 발휘한 것이다.

### 2\_ 활용 가능한 AI 리스트

1년에 책 한 권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업무 효율이 10배는 올라가는 것 같다.

책 저술을 위해서는 ChatGPT, Claude, Gemini, NotebookLM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파워포인트 제작을 위해서 Gamma를, 영상 제작을 위해서 Invedio를,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서 Readdy를, 이미지 제작을 위해서 Midjourney를, 학술지 연구를 위해서 SciSpace를 사용하면서 업무 전임 비서 10명을 둔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 AI, 설교자의 본질을 묻다

AI 기술을 설교 준비와 목회에 적용하면 어떨까?

## 인공지능은 ‘성경 연구 및 석의의 도구’와 ‘설교 구성과 예화 개발의 협력 도구’ 등 보조 툴로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책 저술을 위해서는 ChatGPT, Claude, Gemini, NotebookLM를, 파워포인트 제작을 위해서 Gamma를, 학술지 연구를 위해서 SciSpace 등을 사용하면 업무 전임 비서 10명을 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에스라 김 교수 | 월간목회 2026년 2월호

이를 위해 작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AI를 활용한 성경 연구 및 설교 준비 세미나'를 진행했다. 모집 인원 1백 명을 훨씬 초과하는 사람이 등록했고, 반응이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와 목회 업무에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적어도 업무 시간을 50~70퍼센트까지 줄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의 개인적인 컨설팅을 위해 'AI목회컨설팅그룹(aipcg.org)'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AI 기술을 연구해 온 관점에서 볼 때, AI 시대는 설교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묻고 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AI가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다면, 설교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이 원어 분석, 주석 연구, 설교 개요 작성, 적용과 예화 수집을 대신할 수 있다면, 설교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 글에서는 필자의 경험과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 인공지능이 설교 준비와 전달에 미치는 영향

AI가 새롭게 연 설교 준비에서부터 전달까지의 유익은 다음과 같다.

### 1\_ 획기적인 시간 단축

전통적으로 설교 준비는 '본문 선택, 원어 연구, 역사적·문화적 배경 조사, 주석 참고, 신학적 메시지 및 적용점 도출, 설교문 작성'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은 통상 20~30시간, 길게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AI는 이 과정 중 상당 부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 AI에게 '시편 23편의 히브리어 원어 분석과 고대 근동의 목양 문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라. AI의 (Deep) Research 기능을 사용하면 몇 분 만에 'רה"א(rahah, 목자)의 의미 범위, 고대 이스라엘의 목양 관습,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스스로를 '목자'로 칭했던 역사적 배경까지 정리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같으면



사진제공: 에스라 김

여러 권의 주석서와 신학 사전을 뒤져야 했을 작업이 몇 분 만에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한국의 많은 목회자가 영어로 된 신학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AI 번역 도구는 이 장벽을 상당 부분 낮추었다. 번역이 안 된 영어 주석이나 좋은 성경 및 신학 사전을 한국어로 즉시 요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필요에 따른 설교 전달 방식 보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급격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을 경험했다.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설교 전달 방식도 달라졌다.

‘AI 자막 생성 기술은 청각 장애인 성도들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고, AI 번역은 다문화 가정 성도들에게 모국어로 설교를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AI 기반의 설교 분석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설교의 구조, 언어 사용 패턴, 청중 반응 등을 분석하여 설교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AI는 특히 설교 전달의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어체에서 대화체로 바꾸기, 기억에 남는 문구 개발, 수사학적 기법 개발, 설교 노트 개발, PPT를 위한 내용 최적화, 멀티미디어 통합, 음성 패턴 분석, 신체적 전달 요소 개발, 전달의 진정성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인공지능, 이렇게 활용하라

설교 준비에 있어 구체적 활용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 1. 성경 연구와 석의의 보조 도구

AI는 성경 연구의 효율적인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원문 분석, 평행 구절 검색, 역사적·문화적 배경 연구, 문예적 특성 연구, 성경신학적 주제 연구, 핵심 메시지 파악 등에서 AI는 빠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필자는 AI를 ‘디지털 연구 조교’로 활용하고 있다.

## 설교의 능력은 ‘성령’께 달려 있으므로 AI 활용으로 설교 준비 시간이 줄어들수록 성령의 조명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설교자는 정통 신앙을 분별하고 수호해야 할 신학적 책임을 갖는다. 즉 AI는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려 하지만, 설교자는 특정한 신학적 전통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해야 한다.

에스라 김 교수 | 월간목회 2026년 2월호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מִיתָבָה) 개념의 발전 과정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노아 언약부터 아브라함 언약까지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AI는 때로 부정확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기도 한다.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다. 필자 역시 존재하지 않는 주석서를 인용하거나, 특정 학자의 견해를 잘못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AI의 결과물은 반드시 원전이나 권위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AI의 환각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AI가 ‘NotebookLM’이다.

### 2. 설교 구성과 예화 개발의 협력 도구

AI는 설교 구성에 있어서도 유용한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현대 한국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AI는 다양한 적용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물론

이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신학적 판단과 목회적 통찰을 거쳐 정제되어야 한다.

예화 개발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특정 이슈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예화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서로 집을 지라’(갈 6:2)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화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면, 독거노인 돌봄이나 세대 간 소통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3. 교육 및 양육 콘텐츠 개발

AI는 설교 외에도 다양한 목회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성경 공부 교재 개발, 새신자 양육 교재 및 제자 훈련 교재 제작, 주보 목상 글 작성 등에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AI를 잘 활용하는 교회들은 AI를 활용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성경 공부 가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어린이용, 청소년용, 장년용으로 같은 본문을 다르게 풀어 제



김근기에 · 공예진

공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돕고 있다.

## 인공지능 시대, 설교자가 붙잡아야 할 본질 3가지

AI가 설교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설교자의 고유한 사역 본질 세 가지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1\_ 성령의 조명과 기도 사역

설교의 본질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영적 사역이다. AI가 뛰어난 성경 분석과 논리적 구성은 제공할 수 있으나, 성령의 조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설교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성령'께 달려 있다. 따라서 AI 활용으로 설교 준비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절약된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더 투자해야 한다.

### 2\_ 목회적 관계와 삶의 권위

설교는 목회적 관계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설교자는 성도들의 삶을 알고 아픔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하는 목자다. AI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말할 수는 있으나, 특정 성도가 겪는 구체적인 고통은 알지 못한다. 목회자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성도들은 영적 성장과 치유, 격려를 경험한다. AI 사용으로 절약한 시간을 관계 사역에 투자해야 한다.

### 3\_ 신학적 분별력과 해석학적 책임

AI는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려 하지만, 설교자에게는 특정한 신학적 전통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책임이 있다. 개혁주의, 웨슬리안,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전통 등 각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은 설교자 고유의 해석학적 책임 영역이다. 또한 AI가 이단적 해석을 경고 없이 제시할 수 있으므로, 설교자는 정통 신앙을 분별하고 수호해야 할 신학적 책임을 갖는다. 6